

민주주의와 이슬람은 양립할 수 있는가?: 인도네시아 무슬림에 대한 여론조사 분석을 중심으로*

박 정 훈**

요약

지금까지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을 점검하는 많은 연구가 소개되었지만,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들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는 소홀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정치체제와 규범으로서 민주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추이를 살펴보았다. 조사 결과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개인의 종교적 경건함과 이슬람의 더욱 적극적인 현실참여,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슬람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할수록 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정당들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은 상기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 분야의 이슬람화가 민주주의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지만, 동시에 정당제도 내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와의 양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

주제어: 이슬람, 민주주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미시적 분석

* 이 논문은 2021년 7월에 열린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설립 40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원고를 수정 및 보완한 결과임.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동아연구소 정정훈 연구교수님과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전임연구원, jhpark82@sogang.ac.kr / jhpark@u.nus.edu.

I. 서론

전투성, 화합 불능성, 비이슬람교도 집단 간의 물리적 근접성은 이슬람의 지속적 특성이다. 그리고 이것들로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이슬람교도의 분쟁 성향을 설명할 수 있다(헌팅턴 1996[2016], 440).

실제로, 긴 안목에서 보면 오히려 이슬람세계쪽이 자유주의 이념에 무릎을 꿇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 본질적으로 민주주의도 아니고 자본주의도 아닌 미래를 떠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후쿠야마 1992, 86-7).

이른바 ‘정치적 이슬람(political Islam)’의 등장은 냉전 종식 이후의 국제정치에서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이다. 무슬림 사회에서 정치적 힘을 결집하여 궁극적으로 알라를 경배하는(God-fearing) 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일련의 대중운동들을 지칭하는 정치적 이슬람(Sadowski 2006, 219)은 1979년 이란혁명의 성공과 여러 무슬림 국가들의 자유화 조치와 맞물려 크게 성장하였는데, 그 형태와 목적을 위한 방법에 있어 큰 다양성을 나타낸다. 즉, 알카에다(Al-Qaeda)와 이슬람 국가(IS)로 대표되는 극단적인 테러리즘에 기반을 둔 조직들이 발흥한 동시에 터키의 정의개발당(AKP), 튀니지의 엔나흐다(En Nahda),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복지정의당(PKS) 등이 보여주듯이 정당정치를 통한 점진주의적 방식 또한 뚜렷하게 관측된다. 그 방식이 무엇이든지 간에, 정치적 이슬람은 현재 지역적 경계를 넘어 무슬림 사회 전반에 걸쳐 일종의 대안 이념으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Akbarzadeh 2011, 1-2).

이슬람이 종교를 넘어 정치의 영역으로 확장되자 학자들은 이른바 ‘민주화의 제3의 물결’(Huntington 1991)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장했던 민주주의 체제와 이슬람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즉 양립 가능성(compatibility)에 대한 논의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논의의 전반적 기초는 정치사적 변곡점들을 거치면서 긍정론과 부

정론 사이를 오고 갔다는 것이다. 1990년대 초반 공산체제의 붕괴 이후 무슬림 사회 역시 이슬람의 종교적 전통과 구성원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Esposito and Voll 1996) 혹은 민주주의 체제 자체의 우월성(후쿠야마 1992)으로 인해 중국적으로는 민주화의 길을 걸을 것이라는 긍정론은 2001년 9/11사태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상징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발흥과 함께 이슬람 특유의 정교 일치와 반자유주의, 그리고 타문화에 대한 강한 배타성을 드러내는 논의들로 인해 그 적실성에 타격을 입었다(Tibi 2008; 헌팅턴 2016 [1996]). 이후 양립 가능성에 대한 논쟁은 갈수록 뚜렷해지는 이슬람주의 정당들의 이념과 행태적 온건화가 과연 무슬림 국가들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Wegner and Pellicer 2009; Tezcür 2010; Park forthcoming), 그리고 2010년대 초반의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연쇄적인 민주화운동을 일컫는 이른바 ‘아랍의 봄’이 사실상 실패한 것¹⁾이 정치적 이슬람의 한계에서 기인하는지(Chamkhi 2014; McCarthy 2018)에 관한 견해에 따라 긍정론과 부정론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타진하는 일련의 연구들은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슬람교도, 즉 무슬림들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태도와 가치들이 얼마나 민주적인지 체계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 이러한 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다이아몬드(Diamond 1999, 65)가 지적했듯이, 한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것은 비단 정치 엘리트의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 혹은 제도의 수준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민주주의 체제를 실현 가능한 다른 대안들보다 그 사회에서 가장 적합하고 올바르다고 믿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달리 말하면 해당 무슬림 사회의 정치문화가 얼마나 민주주의에 친숙

1) 아랍의 봄으로 인해 기존 권위주의 정권이 몰락한 국가는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예멘에 불과하며, 그 가운데 최소한 수치상으로 안정적인 민주주의의 이행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튀니지뿐이다.

한지에 따라 양립 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다(Inglehart and Welzel 2003). 둘째, 지금까지 소개된 소수의 개인 단위의 이른바 미시적(micro-level) 분석에 기반을 둔 연구들은 대부분 중동과 아프리카, 혹은 유럽과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국가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Tessler 2002, Hofmann 2004; Ciftci 2013), 전체 무슬림들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무슬림²⁾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와 가치 경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함에 있어 크게 소홀했다. 아시아 무슬림을 분석대상에 편입시킨 미시적 연구 역시 무슬림 내부에서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간과하고, 특정 시점의 자료에 의존함으로써 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와 선호도를 통시적으로 분석하지 못했다(Ciftci 2010).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의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와 여러 민주주의 가치 규범들에 대한 태도와 그 추이를 경험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1998년 수하르토 정권의 갑작스러운 몰락 이후 민주주의 제도가 빠른 속도로 정착하며 안정적인 민주주의 이행경로를 거치는 듯 보였으나, 인권신장과 부정부패 척결, 그리고 삶의 질의 향상과 같이 민주주의 제도의 책임성(accountability)을 향상하는 측면에서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Croissant and Haynes 2021). 특히 최근 들어 정치적 이슬람의 동원이 타종교와 문화에 대한 강한 배타성과 거부감으로 표출되면서(Davidson 2018), 다른 국가들보다 관용적이고 다원적으로 여겨졌던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민주주의와 양립 가능한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북아시아의 무슬림은 약 8억 7천여만 명으로 전체 무슬림의 약 48%를 차지한다(<https://www.worlddata.info/alliances/oic-organization-of-islamic-cooperation.php>, 검색일: 2021년 6월 4일).

분석 결과,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은 개인의 종교적 경건함과 이슬람의 더욱 적극적인 현실참여, 그리고 미국에 대한 반감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이슬람주의’적 성향이 더욱 강할수록 비민주적 정치체제를 선호하며, 일부 민주주의 규범들에 대해서도 반감을 보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슬람주의에 이념적 기반을 둔 정당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이러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거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점차 뚜렷해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정치와 사회 분야의 이슬람화가 민주주의의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만, 동시에 정당제도 내부에서 이슬람의 정치적 동원이 이루어질 때 민주주의와의 양립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중요한 함의를 가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다음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적 이슬람의 성립과 발전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 내부의 다양성이 이슬람주의에 대한 견해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대한 선호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이론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가설설정과 변수조작을 비롯한 연구방법을, 제4장에서는 구체적인 경험적 연구결과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연구결과가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양립가능성,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불안정한 민주주의 이행경로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가지는지 요약한다.

II.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이슬람의 관계: 역사적·이론적 고찰

인도네시아의 무슬림(지식인) 사회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민족주의를 이용해 서구 제국주의에 정치적으로 맞서기 시작한 20세기 초반이다. 당시 서구 열강에게 열세를 면치 못하던 이슬람의 근대적 개혁을 지지하는 근대주의자(modernist) 지식인들은 기존의

학교와 지역 단위의 종교운동을 넘어 보다 광범위한 대중조직(mass organization)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정치화시키고자 했다(Noer 1973, 121). 1911년 중부 자바 지역에서 우마르 사이드 쥘크로아미노토(Oemar Said Tjokroaminoto) 등에 의해 설립된 사레캣 이슬람(Sarekat Islam, 이슬람 연합)은 이러한 대중조직 설립의 첫 사례이다(Hadiz and Khoo 2011, 469). 사레캣 이슬람은 이후 인도네시아 최초의 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주목할 점은 네덜란드 식민통치로부터 온전하게 독립할 미래의 인도네시아가 선거제도와 양성평등(특히 남편과 아내)에 기반을 둔 민주 정부에 바탕이 되어야 함을 당의 기본강령으로 채택한 것이다(Noer 1973, 140-142). 그러나 이와 동시에 사레캣 이슬람은 “신이 인간에게 행복과 축복을 선사하기 위해 승인한 가장 완벽한 규범”인 이슬람의 선교를 방해하는 모든 제도의 철폐를 주장하면서, 독립 정부가 이슬람의 이상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천명했다(Noer 1973, 140-142).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하는 대신, 이슬람의 정치질서 속에서 민주주의 제도를 제한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사레캣 이슬람의 노선은 이후 무함마디아(Muhammadiyah)와 나흐다똘 올라마(Nahdlatul Ulama, NU), 그리고 이슬람 연맹(Persatuan Islam, Persis)을 비롯한 보수주의 무슬림 정치단체들에 계승되었다. 또한, 아구스 살림(Agus Salim)과 아흐마드 하산(Ahmad Hassan), 그리고 하산의 제자인 모함마드 나치르(Mohammad Natsir) 등 무슬림 지식인들은 1930년대 수카르노(Sukarno)가 이끄는 무슬림 민족주의 운동가들과의 논쟁을 통해 독립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율법, 즉 샤리아(sharia)에 바탕을 두면서 인민의 주권은 신에 의해 제한된 영역에서 시행 가능한 이른바 ‘신정민주주의’(theistic democracy)에 바탕을 두어야 함을 역설했다(Effendy 2003, chap. 1; Feener 2007, 91-92). 이러한 보수주의자 그룹의 정치적 목표는 독립이 임박한 1945년 6월 제헌헌법 전문에 무슬림

들의 샤리아 준수 의무를 명시할 것을 민족주의 지도자들과 합의하여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기독교를 포함한 여타 종교지도자들의 강한 반발로 “신에 대한 믿음”과 민주주의의 병존을 명문화한 **판짜실라(pancasila)**를 국가 이념으로 채택하는 것으로 후퇴하게 된다(Kahin 2012, 43-45).

인도네시아 공화국이 공식적으로 선포된 1949년부터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의 이른바 ‘교도민주주의’의 선포로 인해 의회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 1959년까지 절대다수의 무슬림 정치세력들은 선거와 정당정치라는 민주주의의 제도적 틀을 존중했다.³⁾ 독립 이후 최초로 치러진 1955년 총선에서는, 근대주의자들을 대표하는 마슈미(Masyumi, 인도네시아 무슬림 최고협의회)와 전통주의자 단체 NU 이외에도 사례깃 이슬람, 이슬람 교육운동(Perti) 등의 이슬람 정당들이 약 45%의 득표율을 획득했다. 비록 이슬람 정당들은 비슷한 득표율을 획득한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 국민당(PNI)을 비롯한 이른바 민족주의자(kebangsaan) 그룹과 이슬람의 국교화와 같이 이념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관해서는 치열하게 대립했지만, 그 외의 사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인권, 정부체계, 그리고 국가정책 기초와 관련하여 상정된 주요법안들의 90%를 통과시켰다(Effendi 2003, 41). 더욱이 나치르를 비롯한 마슈미 지도자들은 수카르노가 개헌안 처리지연을 이유로 의회제도를 중단시키자 인도네시아 사회당(PSI)을 비롯한 비이슬람 야당들과 연대하여 민주주의 수복투쟁을 전개한 바 있다(Kahin 2012, 88). 이러한 온건주의적 태도는 이슬람의 정치적 활동이 사실상 금지된 수카르노 정권 후기와 그 뒤를 이은 수하르토 장군의 이른바 신질서(Orde Baru) 정권까지 이어져, 나치르를 포함한 구 마슈미 인사들은 1967년 인도네시아 이슬람

3) 물론 카르토수위르조(Kartosuwirjo)를 중심으로 한 강경주의세력이 이슬람 신정체제의 건설을 위해 벌인 다룰 이슬람(Darul Islam, 이슬람의 집) 반란은 예외이다. 1949년 서부 자바를 중심으로 일어난 이 반란은 대다수 무슬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1950년대 말 소멸하였다.

다과 위원회(Dewan Dakwah Islam Indonesia, DDII)가 설립하여 이슬람의 국교화를 요구하는 대신 다과(dakwah, 선교)를 통한 인도네시아 사회의 점진적 이슬람화를 꾀했다(Singh 2007).

30년 넘게 유지되어 온 수하르토 정권의 정치규제와 정교분리 정책으로 사실상 동면상태에 있던 정치적 이슬람은⁴⁾,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한 사회 혼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다시 깨어났다. 주목할 점은, 티토 사후 벌어진 종교 간 갈등이 결국 심각한 내전과 분리 독립으로 귀결되었던 구(舊)유고슬라비아 사례의 재현을 점친 서구 학자들과 언론들의 우려와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년 수하르토의 사임 이후 의회를 통한 평화적인 정권 이양과 (제도적) 민주주의 체제 복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Stepan 2014).

학자들은 인도네시아에서 벌어진 이러한 순조로운 민주주의 이행과 정에는 NU와 무함마디아로 대표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들과 이들을 이끄는 지도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신념이 큰 역할을 담당했음을 지적하고 있다(Hefner 2000; Barton 2010, Liddle and Mujani 2013). 각각 4천만 명과 3천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NU와 무함마디아는 정치활동 대신 교육과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인도네시아 사회 전반의 다원성을 높였으며(Hicks 2012), 외환위기 당시 군부를 동원해 반정부세력을 잔인하게 탄압한 수하르토 정권에 맞서 시민사회를 동원해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Stepan 2000, 49). 특히 NU와 무함마디아의 지도자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와 아민 라이스(Amien Rais)의 민주주의로의 정치개혁에 관한

4) 1973년 신질서 정권은 NU를 포함한 소수의 친정부성향 이슬람 정당들을 통일개발당(Partai Pembangunan Persatuan, PPP)으로 통폐합하였다. PPP는 명목상 무슬림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었으나, 이슬람 교리에 기반을 둔 강령과 정책 개발이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당의 로고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더욱이 수하르토 대통령은 1982년 발표된 대통령령을 통해 모든 사회단체와 정당들이 뺄씨실라를 유일한 이념(asas tunggal)으로 채택하도록 강제했다(Hamayotsu 2002, 367-368).

분명한 지지에 바탕을 둔 리더십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목소리를 최소화했다.⁵⁾ 따라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단체들의 민주주의 이행과정에서 담당한 긍정적인 역할은 인도네시아를 헌팅턴이 제기한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의 양립 불가능성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낙관론은 2000년대 초반 암본(Ambon)과 포소(Poso)를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 발생한 종교 간 대규모 폭력사태와 라스카르 지하드(Laskar Jihad. 이슬람 전사)를 비롯한 극단주의 세력의 출현으로 인해 한때 도전을 받기도 했으나(Hasan 2006; Sidel 2006), 2010년대 중반까지 유지되었다. 특히 부패(Davidson 2007), 원칙 없는 정당 간 연합(Slater and Simmons 2013), 뿌리 깊은 후원주의(clientelism)(Berenschot 2018) 등 공고화되지 못하는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설명이 제기되었지만, 이슬람은 이러한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이는 수하르토 정권 당시 이슬람주의 지하학생운동에서 민주화 이후 정당으로 변신한 복지정의당(PKS)의 사례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주류화, 온건화 되어가는 정치적 이슬람의 변화에 주목한 것이다(Tanuwidjaja 2012). 따라서 헤프너(Hefner, 2000)가 언급했듯이, 이슬람은 적어도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붕괴를 막는 데 필수적인 시민성(civility)을 지키는 행위자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의 일련의 정치변동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의 단선적 관계에 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014년 대선과정부터 시작된 무슬림 사회의 이념적 양극화는 2016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비무슬림 중국계 후보 아훅(Ahok)에 대한 입장에 따라 크게 증폭되었다. 특히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인도네시아 사회의 다원주의를 일관되게 지지할 것이라 여겼던 NU와 무함마디야의 행

5) 민주화 이후 와히드와 라이스는 각각 국민각성당(PKB)과 국민수권당(PAN)을 창당해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했다.

동 변화에 주목한다. 양 단체의 일부 지도자들은 아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대규모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Mietzner and Muhtadi 2018), 아흐마디아(Ahmadiyah)와 LGBT를 비롯한 종교와 성적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Rüland 2021, 244).⁶⁾ 이와 관련해 멘치(Menchik, 2016)은 인도네시아 주류 무슬림 사회가 인식하는 다원주의는 서구의 그것과는 달리 자유주의(liberalism)적 요소가 크게 배제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비자유성은 20세기 초반 발생한 기독교와의 정치적 균열에 그 역사적 기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함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해 정면으로 반대하는 과격 이슬람 단체들의 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정치적 부상 역시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Mietzner 2018).

인도네시아의 이슬람과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들은 풍부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슬람에 관한 연구의 지리적 지평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헌팅턴식의 서구중심주의적 사고를 넘어 종교와 민주주의 사이의 정치적 관계를 새롭게 이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세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거의 모든 연구의 분석단위가 조직 혹은 이들을 대표하는 소수의 지도자에 집중되어 있어 무슬림 대중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없고, 시간에 따라 이러한 인식이 변화하는지, 변화한다면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둘째, 최근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혹은 단체 내부)의 이념적 분화는 비록 같은 종교관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정치관에 따라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기존 연구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의 이념적 스

6) 이와는 달리 압두라흐만 와히드의 딸인 예니 와히드(Yenny Wahid)가 이끄는 와히드 재단(Wahid Foundation)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차별금지를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와히드 재단 인사들은 NU의 자유주의 그룹을 대표한다 (Mietzner 2021).

펙트럼을 보여줄 수 있는 변수를 개발하지 못했다. 셋째, 다파를 통한 인도네시아의 이슬람화를 이념적으로 지향하면서 동시에 민주적 정치 체도를 존중하고 있는 PKS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는 달리 정치적 이슬람, 혹은 이슬람주의자 집단 가운데에서도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크게 다를 수 있다. 특히 정당이 민주주의의 공고화에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를 고려한다면(Randall and Svåsand 2002), 이슬람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무슬림과 이슬람주의를 선호하는 무슬림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를 분리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년간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도네시아의 무슬림들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민주주의 체도와 규범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⁷⁾

Ⅲ. 가설설정과 분석모델

전술했듯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특히 권력수단을 이용하여 이슬람의 국가제도화를 추구하는 정치적 이슬람이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속변수인

7) 물론 여론조사의 계량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의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체제 안정성을 전적으로 담보하지 못하며, 특히 엘리트들의 정치적 공작으로 인해 급격한 체제변동을 무수히 겪은 바 있는 동남아시아에서는 신중히 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치문화에 관한 다수의 연구가 언급했듯이 일반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태도와 이해정도가 높을수록 안정적이고 양질의 민주주의 체제가 정착될 가능성이 크다(Inglehart and Welzel 2003). 또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리고 2018년 말레이시아의 사례를 미루어본다면 시민들의 민주주의와 개혁에 대한 의지가 민주적 체제변동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고 부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민주주의를 측정 가능한 개념으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민주주의는 최소한 제도적으로 (1) 구성원들의 (정당을 통한) 정치참여가 보장되며 (2) 개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의사와 신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가 최대한 보장된 정치체제를 일컫는다(Whitehead 1986, 8).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여건이 잘 갖춰진 것만으로 한 국가의 민주주의로의 이행과 공고화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않으며, 구성원들, 특히 일반 시민들의 상호관용과 신뢰, 그리고 의사결정과정 참여에 대한 의지 등을 포함한 민주적 규범에 대한 강한 신념은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인 절차적 민주주의(procedural democracy)를 넘어 보다 심화한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로의 진입에 있어 필수조건이다(Inglehart 2000, 96). 따라서 무슬림들의 민주주의 제도와 규범에 관한 지지가 강할수록 이슬람과 민주주의가 양립할 수 있는 긍정적인 환경이 형성될 수 있다(Hofmann 2004, 657).

주요 설명변수인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분명한 개념화도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은 꾸란의 가르침과 순나를 삶의 지침으로 여기지만 다른 종교의 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현상에 대한 의견과 해석은 지역과 소속집단, 그리고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무슬림들의 다양성은 특히 이슬람 사상을 적극적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실천하고 경제와 사회적 행동 모두를 규율하는 일종의 이념적 대안으로써 받아들이는 이슬람주의(Islamism)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Mozaffari 2007; 엄한진 2012, 258). 이슬람주의의 구체적인 요소들은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1) 샤리아를 바탕으로 국가와 종교가 일치된 정치체제의 선호 (2) 무슬림이 지켜야 할 행동적 의무를 철저히 실천함을 바탕으로 한 엄격하고 도덕적인 삶의 추구 (3) 서구, 특히 미국의 문화와 정부 정책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꼽는다(Daniels 2007; Mozaffari 2007, 23; Choi 2017, 230). 주목

할 점은 상술한 인도네시아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실정치와 거리를 두지 않고 선거와 정당제도를 통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이슬람주의자들이 점점 눈에 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수준에서의 정치적 이슬람을 (1) 이슬람주의에 대한 호감도와 (2) 이슬람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 여부로 나누어 측정한다.⁸⁾

이러한 주요 변수들의 개념화 작업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도 출할 수 있다.

- 가설 1: 이슬람주의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민주주의제도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다.
- 가설 2: 이슬람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 가설 3: 이슬람주의에 대한 지지가 강할수록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지지가 줄어든다.
- 가설 4: 이슬람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는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호감도가 낮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슬람과 민주주의와의 양립 가능성을 다룬 기존 연구가 무슬림과 비무슬림 간의 이분법적 구분을 통한 비교에 치우쳐 무슬림 사회 내부의 정치적 다양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개인이 인식하는 이슬람의 중요성 혹은 종교적 행위 참여도를 변수화한 이른바 종교성(religiosity)을 토대로 분석하여 종속변수인 민주주의 지지에 관한 변량을 충분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Ciftci

8) 상기한 분류방식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즉 독립변수 사이의 높은 상관관계로 인한 통계모델 결과의 왜곡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례로 2019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측정한 두 변수 사이의 분산팽창계수(Variable Inflation Factor, VIF)는 1로 측정되었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이 넘으면 다중공선성을 의심해야 한다(<https://campusguides.lib.utah.edu/c.php?g=160853&p=1054159>, 검색일: 2021년 8월 31일).

2010, 1460). 따라서 종교성을 포함한 다면적인(multifacted) 개념으로서의 이슬람과 무슬림 내부의 다양성을 동시에 반영한 본 연구의 가설 설정은 이슬람과 민주주의의 양립 가능성에 대한 보다 타당한 분석을 도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비영리 여론조사기관인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가 시행한 연례국제여론조사 Global Attitude Project(GAP) 가운데 분석에 필요한 문항들이 포함된 2010년, 2015년, 2017년, 그리고 2019년의 데이터를 사용했다.⁹⁾ 종속변수 가운데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선호는 2017년 설문조사 가운데 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전제주의, 그리고 군사정부에 관한 응답자의 지지를 묻는 문항(Q29)을, 민주주의 규범에 관한 선호는 각 설문조사의 정치적 자유, 무력(혹은 폭력)을 통한 갈등 해결, 소수자에 대한 관용(2010년 제외)에 대한 지지(혹은 반대)에 관한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대부분 모델에서 사용되는 종속변수들은 분석의 간결성을 위해 선호/비선호(혹은 찬성/반대)의 이분변수(dichotomous variable)화 과정을 거쳤으나, 한 설문조사에서 관련 문항이 복수일 경우(예: 2015년과 2019년의 정치적 자유에 관한 문항들),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통해 관련성이 높은(eigenvalue ≥ 1) 요인들을 추출한 다음 이들을 표준화(standardization)¹⁰⁾ 과정을 통해 단일한 연속변수(continuous variable)로 치환하였다.

정치적 이슬람에 관한 독립변수도 이슬람주의에 대한 선호와 이슬람주의 정당에 대한 지지로 나뉘는데, 전자는 각 설문조사 가운데 개인

9) GAP는 World Value Survey와 Asian Barometer를 비롯한 유사한 성격을 가진 국제 여론조사들이 몇 년간에 걸친 이른바 ‘웨이브’(Wave) 내에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매년 실시하여, 짧은 기간 안에 비교 가능한 충분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지 여론조사 데이터 아카이브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한 실정을 고려한다면, GAP는 인도네시아의 정치 현상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다.

10) 조사에 포함된 모든 무슬림국가들의 샘플을 대상으로 한 표준화 과정을 거친 변수의 평균은 0, 표준편차는 1이다.

적 경건함(기도횟수, 단식, 이슬람의 개인적 중요도), 이슬람과 국가와의 밀접한 관계(샤리아법의 제도화, 국가의 의사결정에 대한 이슬람의 개입, 꾸란의 가르침에 바탕을 둔 국가정책 수립), 반이슬람세력에 대한 저항(반미주의, 극단주의 무장단체 혹은 투쟁방식)에 관련된 문항들을 선별해 이들을 요인분석과 표준화 과정을 통해 단일한 연속변수로 추출하였으며, 후자는 현재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주의 정당들, 즉 복지정의당(PKS), 통일개발당(PPP), 성월당(Partai Bulan Bintang, PBB)¹¹⁾의 지지 여부에 따른 이분변수로 설정하였다.¹²⁾

본 연구에서 사용될 모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수가 이분변수일 경우,

$$\begin{aligned} \text{Model: } \text{logit}[P(y_{\text{democracy}} = 1)] \\ = \beta_1 \text{ 이슬람주의} + \beta_2 \text{ 이슬람주의정당} + \beta_3 \text{ 교육수준} + \beta_4 \text{ 소득수준} + \beta_5 \text{ 경제상황인식} \\ + \beta_6 \text{ 도시지역거주} + \beta_7 \text{ 성별} + \beta_8 \text{ 연령} + \beta_9 \text{ 자바지역거주} + \beta_{10} \text{ 자바인} + \varepsilon \end{aligned}$$

또한, 종속변수가 연속변수일 경우,

$$\begin{aligned} \text{Model: } \hat{y}_{\text{democracy}} \\ = \alpha + \beta_1 \text{ 이슬람주의} + \beta_2 \text{ 이슬람주의정당} + \beta_3 \text{ 교육수준} + \beta_4 \text{ 소득수준} + \beta_5 \text{ 경제상황인식} \\ + \beta_6 \text{ 도시지역거주} + \beta_7 \text{ 성별} + \beta_8 \text{ 연령} + \beta_9 \text{ 자바지역거주} + \beta_{10} \text{ 자바인} \end{aligned}$$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이슬람에 관한 두 가지 독립변수들 외에도 통제변수로 교육수준(5단계), 소득수준(5단계), 당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4단계), 그리고 도시지역 거주 여부 등이 모델에 투입되었는데, 이것은 개인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연구(Inglehart 2000; Magalhães 2016)에 따른 것이다. 또한, 성별, 연령, 자바지역 거주 여부, 자바인(종족) 등의 인구

11) 성월당은 구 마슈미 당 간부들이 민주화 이후 설립한 정당이다.

12) 인도네시아 이슬람주의 정당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Platzdasch(2009)를 참고할 것.

학적 변수들을 포함하여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더욱 정밀하게 측정하고자 했다.¹³⁾

IV. 경험적 분석

1.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치적 이슬람의 선호 여부

<표 1>은 인도네시아에서 정치적 이슬람에 대한 견해(이슬람주의에 대한 호감도와 이슬람 정당 지지)와 네 가지 정치체제(직접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 독재체제, 군사정부)에 대한 개인적 지지 사이의 상관관계를 위해 사용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결과이다. 만약 각 변수의 회귀계수가 0보다 크면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해당 정치체제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이다. 예를 들어 모형 2에서 소득수준의 회귀계수는 0보다 큰데, 이는 응답자의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의민주주의 체제를 지지할 확률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모형 2의 연령변수와 같이 회귀계수가 0보다 작으면 변수의 값이 증가할수록 해당 정치체제를 선호할 확률이 줄어든다.

<표 1>에서 우리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이슬람주의에 대한 강한 호감을 보일수록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권위주의 체제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확률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슬람주의와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상관관계가 긍정적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독재체제와 군부 집권에 대해서는 이슬람주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p < 0.1$) 지지할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슬람주의에 대해 영향을 받은 인도네시아 무슬림일수

13)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기술통계(descriptive statistics)는 이 글의 부록의 참고할 것.

록 민주주의 대신 권위주의에 대한 신념을 보일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정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유권자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반대와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에 대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오히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으나 이슬람 정당 지지자들은 독재체제와 군부 통치에 대해 상대적으로 거부감을 가질 확률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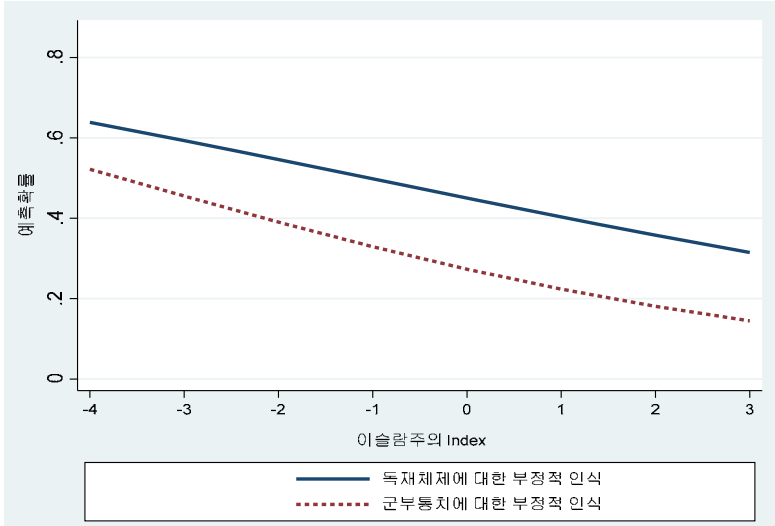
〈표 1〉 이슬람주의와 정치체제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 2017년 GAP

모형	모형 1	모형 2	모형 3	모형 4
변수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독재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군부 통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이슬람주의	0.110 (0.117)	-0.091 (0.338)	-0.193* (0.116)	-0.266* (0.140)
이슬람주의 정당	-0.588 (0.365)	-0.689 (0.882)	0.480 (0.357)	0.222 (0.424)
교육수준	-0.075 (0.100)	-0.144 (0.208)	0.139 (0.101)	0.120 (0.115)
소득수준	-0.071 (0.073)	0.435** (0.178)	0.095 (0.075)	0.157** (0.080)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0.196* (0.110)	0.328 (0.235)	0.492*** (0.121)	0.242** (0.124)
도시지역	-0.057 (0.174)	0.340 (0.503)	-0.248 (0.172)	-0.003 (0.193)
성별(여성=1)	0.029 (0.170)	0.096 (0.465)	-0.065 (0.169)	-0.212 (0.181)
연령	-0.041 (0.076)	-0.464** (0.224)	0.015 (0.074)	0.026 (0.079)
자바지역	0.461** (0.193)	0.504 (0.534)	0.159 (0.193)	0.386* (0.220)
자바인	-0.040 (0.181)	0.350 (0.501)	0.661*** (0.183)	0.465** (0.189)
상수	1.231** (0.578)	2.730** (1.213)	-2.324*** (0.596)	-2.776*** (0.662)
Pseudo R-sq	0.021	0.095	0.053	0.041
응답자 수	922	922	922	922

주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 2: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그림 1〉 이슬람주의 레벨에 따른 독재체제와 군부 통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예측확률 (2017)



이슬람주의와 권위주의에 대한 선호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는 <그림 1>에서 더욱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림 1>은 다른 함수들이 평균값에 놓여있다는 가정 하에 연속함수인 이슬람주의 변수의 값에 따라 독재체제와 군부 통치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확률의 추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가장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응답자가 가장 강한 반대를 표명한 응답자보다 독재체제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할 확률이 약 -23.5% 작았다. 또한, 군부통치의 경우 인도네시아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독재체제보다 거부감이 낮았으며, 이슬람주의에 대해 가장 강한 반대를 보이는 응답자가 가장 강한 지지를 보내는 응답자보다 군부통치에 반대할 확률이 약 25.7% 높았다.

인도네시아 정치적 이슬람의 이러한 제도적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낮은 선호(그리고 권위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주의자들의 제한된 민주주의관(觀)과 최근 권위주의적 지도자 뿌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와의 강한 연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누르츨리시 마드지드(Nurcholish Madjid)와 압두라흐만 와히드(Abdurrahman Wahid)로 대표되는 건강한 시민 사회에 기반을 둔 ‘이슬람적 민주주의’(Islamic Democracy)의 정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일련의 인도네시아 무슬림 지식인 그룹과는 달리(Bakti 2005), 특히 FPI와 HTI를 비롯한 급진적인 이슬람 단체들은 민주주의 체제와 이슬람이 근본적으로 공존할 수 없거나, 설령 민주주의적 요소를 도입하더라도 신의 절대적인 주권에 종속된 이른바 ‘신정민주주의’(theo-democracy)에 그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Hasan 2006. 146-148). 또한, 2014년 대통령선거부터 본격화된 군부 출신 야당 지도자 뿌라보워와 이슬람주의자 단체들 사이의 강한 연대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양자 간 연대가 현 대통령 조코위를 비토하기 위한 전략적 필요성에서 시작되었지만, 뿌라보워의 호전적이고 반민주적인 정책(예: 선거제 폐지, 마약거래범 즉결처형)에 이슬람주의자 유권자들이 강한 지지를 보냈다는 점(Fionna and Hutchinson 2019), 본 연구결과와 경험적으로 부합한다.

이슬람주의 정당 지지자들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상대적으로 강한 신념 역시 주목해야 할 대목이다. 인도네시아 이슬람주의 정당, 특히 PKS에 대한 많은 연구는 선거를 치르면 치를수록 정당의 이념적 정향이 온건해질 뿐만 아니라 보다 다수의 무슬림 유권자들을 선거를 통해 동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을 확인했다(Tomsa 2012; Park forthcoming). 비록 이러한 온건화가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이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관해 의견이 분분하나, 본 연구의 결과에 미루어본다면 정당정치 경험을 가진 이슬람주의자, 혹은 정치적 이슬람의 구성원들은 최소한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감은 정당정치 밖에서 머무는 이슬람주의자들보다 낮을 것이다.

2.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치적 이슬람의 선호 여부

정치체제로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인도네시아 이슬람주의자들은 민주주의 규범들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답을 정치적 자유, 무력(폭력)을 통한 갈등 해결에 대한 반대, 소수자 관용 등 순조로운 민주주의 이행에 필요한 규범들에 대한 태도와 정치적 이슬람과 관련한 변수들 사이의 상관관계를 로지스틱 회귀분석과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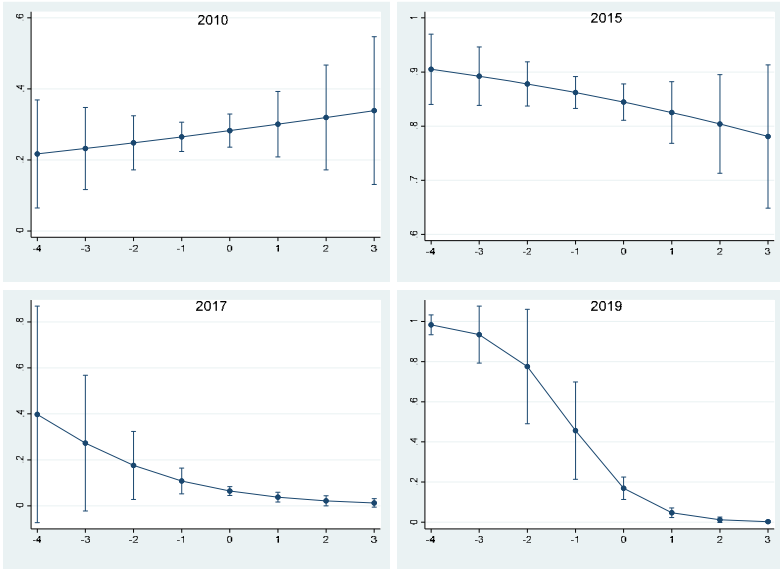
〈표 2〉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 규범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 - (1)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 반대

연도	2010	2015	2017	2019
이슬람주의	0,088 (0,130)	-0,141 (0,106)	-0,565** (0,248)	-1,415*** (0,347)
이슬람주의 정당	0,152 (0,329)	0,036 (0,389)	-0,869 (0,675)	0,105 (0,572)
교육수준	-0,064 (0,096)	-0,226* (0,132)	-0,024 (0,192)	-0,366** (0,153)
소득수준	-0,187** (0,078)	0,184** (0,083)	0,097 (0,142)	0,260** (0,132)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0,303*** (0,115)	0,400*** (0,144)	0,426** (0,177)	0,178 (0,238)
도시지역			0,253 (0,343)	-0,084 (0,150)
성별(여성=1)	-0,027 (0,181)	0,078 (0,226)	0,180 (0,319)	0,235 (0,335)
연령	0,049 (0,074)	0,070 (0,099)	0,237* (0,131)	0,011 (0,129)
자바지역	0,404 (0,261)	0,162 (0,229)	0,808** (0,375)	-0,632* (0,372)
자바인	0,497** (0,202)		-0,969** (0,389)	0,467 (0,371)
상수	-0,188 (0,595)	0,352 (0,798)	-4,823*** (0,918)	-1,516 (1,022)
Pseudo R ²	0,046	0,034	0,099	0,094
응답자수	683	720	913	654

주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 2: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그림 2> 이슬람주의 레벨에 따른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 반대 예측확률 추이 (2010-2019)



여 파악하고자 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변수의 계수가 0보다 크면 해당 정치규범에 대해 개인적으로 지지할 확률이 커짐을 의미하며, 종속변수의 변량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선형 회귀분석의 경우 변수의 계수가 0보다 큰 경우 변수의 크기가 1만큼 상승하면 해당 규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변수 크기만큼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분석 결과,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과 소수자 보호에 대한 태도가 정치적 이슬람과 가장 명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와 <표 3>이 보여주듯이, 이슬람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무슬림일수록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에 대한 반감이 적으며, 소수자에 대한 비관용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았다. 구체적으로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이슬람주의에 대해서 가장 강한 지지를 보

내는 응답자가 가장 강한 반대를 표명한 응답자보다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에 대해 반대할 가능성이 2015년 11.6%, 2017년 14.2%, 2019년 63.2% 적었다(<그림 2> 참고). 같은 조건에서 소수자 보호에 대해 찬성할 확률 역시 2015년 72.5%, 2017년 22.6%, 2019년 12.8% 적었다(<그림 3> 참고). 이와는 달리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이슬람주의 정당 지지자들은 오히려 인도네시아의 다른 무슬림들보다 무력을 통한 갈등 해결에 반대하고 소수자에 관용적 태도를 보일 확률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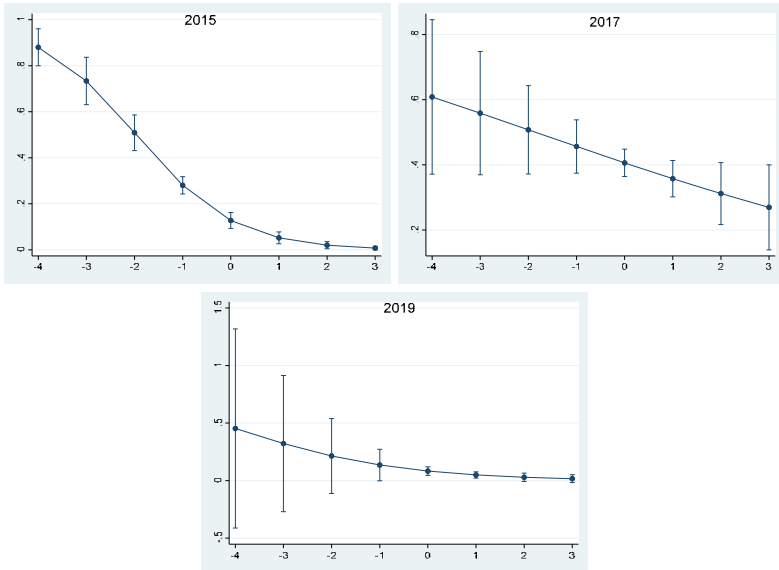
〈표 3〉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의 규범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 - (2) 소수자 관용

연도	2015	2017	2019
이슬람주의	-0.979*** (0.125)	-0.206* (0.118)	-0.555 (0.401)
이슬람주의 정당	0.642* (0.349)	0.530 (0.377)	-0.500 (0.743)
교육수준	-0.120 (0.109)	0.010 (0.105)	-0.259* (0.151)
소득수준	-0.112 (0.076)	-0.156** (0.074)	-0.214* (0.130)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0.082 (0.134)	-0.051 (0.118)	-0.362* (0.218)
도시지역		0.219 (0.175)	-0.216 (0.150)
성별	0.260 (0.200)	-0.202 (0.173)	0.337 (0.327)
연령	-0.006 (0.076)	-0.001 (0.077)	0.007 (0.142)
자바지역	0.264 (0.230)	-0.661*** (0.200)	-0.937** (0.366)
자바인		-0.389** (0.185)	-0.156 (0.390)
상수	-1.356** (0.661)	0.735 (0.614)	0.769 (0.977)
Pseudo R ²	0.139	0.038	0.100
응답자수	741	885	657

주 1: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 2: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그림 3〉 이슬람주의 레벨에 따른 소수자 관용 지지 예측확률 추이 (2015-2019)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자유의 신장에 관해서는 이슬람주의에 대한 개인적 호감도와 이슬람주의 정당 지지 모두 일관된 상관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슬람주의에 대한 선호가 높을수록 정치적 자유에 대한 지지수준이 일관되게 낮게 나온 이전과는 달리 2019년의 경우 이슬람주의에 대한 선호가 한 단위 상승할수록 정치적 자유에 대한 지지수준이 약 0.41 증가하였다($p < 0.05$).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벌어진 이러한 상관관계의 변화가 일견 모순적일 수 있으나, 최근 FPI를 불법 단체로 규정한 이후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조코위 정부의 방침에 이슬람주의자들이 표현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들어 강력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미루어본다면 이해가 가능하다(Setiawan 2020). 이슬람주의 정당 지지 유무 역시 유의미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2017년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정치적 자유의 지지에 대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드러났다(부록 참조).

따라서 통계분석 결과들을 통해 우리는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주의가 제도적 차원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주요 규범들과도 상호배타적인 관계임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협상 대신 무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선호와 소수자에 대한 낮은 관용은 최근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주의자들과 무슬림 대중단체들을 중심으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이른바 ‘비자유주의’(illiberalism), 혹은 힘의 논리를 앞세워 충분한 대화와 협상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아젠다들을 정책화하거나 강요하는 현상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Menchik 2016; Mietzner 2018, 265).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슬람 정당들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이 민주주의 규범들에 대해 여타 인도네시아인들과 별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상대적으로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정당정치 참여 이후의 이념적 온건화가 민주주의 규범에 대한 인식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지난 10여 년간의 여론조사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제도적, 그리고 규범적 차원에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이슬람과 민주주의 사이의 양립 가능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통계분석 결과, 이슬람주의를 개인적으로 선호하거나 혹은 정당정치에 가담하지 않은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지지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대의정치를 포함한 민주주의의 제도뿐만 아니라 제도를 지탱해주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과 그리고 소수자에 대한 관용을 비롯한 민주주의의 주요 규범들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인식할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그러나 이슬람주의 정당들

을 지지하는 무슬림들에게는 이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여타 무슬림들보다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련한 다음 세 가지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먼저 최근의 인도네시아 사회의 이슬람화와 비자유주의화 추세를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전망이 그리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최근 10년 동안 터키, 태국, 헝가리, 러시아 등 다수의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된 지도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연쇄적으로 붕괴한 것과는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1998년 민주화 이후 비교적 성공적으로 민주주의 제도, 특히 선거와 정당정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 의사결정 메커니즘이 큰 위기 없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그러나 여러 학자가 지적하는 것과 같이 이러한 제도적 민주주의의 정착이 인도네시아 사회구성원들의 정치 사회적 권리와 삶의 질의 신장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이슬람주의자들과 정치적 연대를 한 포퓰리스트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주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인도네시아 이슬람주의자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한다면, 정부 차원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증진과 국가의 과격 이슬람주의자들의 정치적 영향력 차단과 같은 정책 수단이 강구되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이념적 극단주의자들을 방어해줄 일종의 문지기로서의 선거경쟁과 정당정치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이슬람주의 정당 지지자들이 이슬람주의자들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일반 대중들의 그것과 통계적으로 다를 바가 없거나 오히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지자만이 아닌 다수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자신의 이념을 온건화 해온 이슬람주의 정당들의 행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건강한 정당정치 메커니즘을 통해 극

단주의자들을 배제하거나 혹은 이념적 변화를 이끌어내어 자신들의 민주주의 체제를 효과적으로 지켜왔다는 점을 상기한다면(래비츠카·지블랫 2018), 인도네시아 역시 가능한 많은 이슬람주의 단체들을 제도권 밖이 아닌 정당정치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이 선거경쟁을 통해 더욱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무슬림 사회 내부의 종교적 균열, 즉 알리란(aliran)이 여전히 인도네시아 정치를 이해하는 유효한 틀임을 뒷받침한다(Fossati 2019). 본 연구는 비록 민주화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화가 뚜렷하게 진행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무슬림 사회 내부에서 자신의 종교적 배경에 따라 정치적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의 모델들에서 이슬람주의 혹은 이슬람 정당 지지를 측정하는 변수들과 달리 여타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민주주의 제도 혹은 규범들 사이의 상관관계들이 대부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인도네시아 무슬림 사회의 종교균열이 인도네시아의 정치 현상에 대한 설명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투 고 일: 2021년 07월 07일

심사완료일: 2021년 09월 01일

게재확정일: 2021년 09월 01일

부록. 기술통계(1) - 종속변수

여론조사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0 GAP	양성평등	-2,070	1,759	0,116	0,751
	무력을 통한 갈등해결 반대	0	1	0,273	0,446
2015 GAP	정치적 자유	4,134	1,042	0,578	1,116
	양성평등	0	1	0,829	0,376
	폭력을 통한 갈등해결 반대	0	1	0,813	0,390
	소수자 관용	0	1	0,224	0,417
2017 GAP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0	1	0,610	0,488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긍정적 인식	0	1	0,957	0,203
	독재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	0	1	0,447	0,497
	군부통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	0	1	0,297	0,457
	정치적 자유	0	1	0,316	0,465
	양성평등	0	1	0,893	0,310
	무력을 통한 갈등해결 반대	0	1	0,076	0,266
	소수자 관용	0	1	0,387	0,487
2019 GAP	정치적 자유	-4,816	0,980	-0,578	1,052
	양성평등	-3,290	1,574	-0,740	0,875
	무력을 통한 질서유지 반대	0	1	0,107	0,310
	소수자 관용	0	1	0,100	0,300

부록. 기술통계(2) -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

여론조사	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2010 GAP	이슬람주의	-2,651	1,727	-0,593	0,788
	이슬람주의 정당	0	1	0,104	0,305
	교육수준	1	5	3,176	1,048
	소득수준	1	5	3,009	1,275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1	4	2,495	0,784
	성별(여성=1)	0	1	0,516	0,500
	연령	1	6	2,994	1,275
	자바지역	0	1	0,640	0,480
	자바인	0	1	0,501	0,500
2015 GAP	이슬람주의	-3,046	2,982	0,602	0,990
	이슬람주의 정당	0	1	0,069	0,253
	교육수준	1	5	3,224	1,081
	소득수준	1	5	3,064	1,468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1	4	2,634	0,800
	성별(여성=1)	0	1	0,447	0,497
	연령	1	6	3,074	1,332
	자바지역	0	1	0,650	0,477

2017 GAP	이슬람주의	-2,037	2,999	0,230	0,724
	이슬람주의 정당	0	1	0,050	0,219
	교육수준	1	5	3,228	1,005
	소득수준	1	5	2,949	1,316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1	4	2,255	0,743
	도시지역	0	1	0,520	0,500
	성별(여성=1)	0	1	0,538	0,499
	연령	1	6	3,101	1,217
	자바지역	0	1	0,650	0,477
	자바인	0	1	0,514	0,500
2019 GAP	이슬람주의	-1,753	0,692	0,479	0,287
	이슬람주의 정당	0	1	0,072	0,258
	교육수준	1	5	3,150	1,160
	소득수준	1	5	3,014	1,318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1	4	2,291	0,772
	도시지역	1	4	1,693	1,022
	성별(여성=1)	0	1	0,592	0,492
	연령	1	6	3,280	1,349
	자바지역	0	1	0,537	0,499
	자바인	0	1	0,440	0,497

부록. 이슬람주의와 민주주의 규범 선호 사이의 상관관계 - (3) 정치적 자유

연도	2015	2017	2019
이슬람주의	-0,316*** (0,048)	-0,161 (0,132)	0,411** (0,193)
이슬람주의 정당	0,148 (0,192)	-0,749* (0,407)	-0,026 (0,152)
교육수준	-0,062 (0,046)	0,048 (0,108)	-0,078 (0,052)
소득수준	0,026 (0,035)	-0,265*** (0,077)	0,054 (0,041)
부정적 경제상황 인식	0,047 (0,058)	-0,045 (0,125)	0,072 (0,068)
도시지역		0,227 (0,178)	0,072 (0,046)
성별(여성=1)	0,094 (0,091)	0,248 (0,176)	0,051 (0,100)
연령	-0,111*** (0,038)	-0,066 (0,079)	-0,069* (0,042)
자바지역	-0,269*** (0,096)	-0,224 (0,212)	-0,154 (0,103)

자바인		-0,090 (0,193)	-0,054 (0,099)
상수	-0,349 (0,296)	0,172 (0,597)	-0,614** (0,275)
Adjusted R ²	0,092		0,032
Pseudo R ²		0,028	
응답자수	645	899	597

주 1: 2015년과 2019년은 선형 회귀분석, 2017년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주 2: Two-tailed test, *p<0.1, **p<0.05, ***p<0.01.

참고문헌

- 래비츠키, 스티븐·대니얼 지블렛. 2018.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서울: 어크로스.
- 엄한진. 2012. “아랍 정치에서 민주주의의 의미와 위상.” 『기억과 전망』 27: 250-292.
- 헌팅턴, 새뮤얼. 2016 [1996]. 『문명의 충돌: 세계질서 재편의 핵심 변수는 무엇인가』. 서울: 김영사
- 후쿠야마, 프랜시스. 1992. 『역사의 종말』. 서울: 한마음사.
- Akbarzadeh, Shahram. 2011. “The Paradox of Political Islam.” Shahram Akbarzadeh, ed. *Routledge Handbook of Political Islam*. London: Routledge, 1 - 8.
- Bakti, Andi Faisal. 2005. “Islam and Modernity: Nurcholish Madjid’s Interpretation of Civil Society, Pluralism, Secularization, and Democracy.” *Asian Journal of Social Science* 33(3): 486 - 505.
- Berenschot, Ward. 2018. “The Political Economy of Clientelism: A Comparative Study of Indonesia’s Patronage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1(12): 1563 - 1593.
- Chamkhi, Tarek. 2014. “Neo-Islamism in the Post-Arab Spring.”

Contemporary Politics 20(4): 453 - 468.

Choi, Jungug. 2017. "The Influence of Poverty on the Politicization of Islam in Indonesia." *Asian Survey* 57(2): 229 - 248.

Ciftci, Sabri. 2010. "Modernization, Islam, or Social Capital: What Explains Attitudes toward Democracy in the Muslim World?"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3(11): 1442 - 1470.

Ciftci, Sabri. 2013. "Secular-Islamist Cleavage, Values, and Support for Democracy and Shari'a in the Arab World."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4): 781 - 793.

Croissant, Aurel, and Jeffrey Haynes. 2021. "Democratic Regression in Asia: Introduction." *Democratization* 28(1): 1 - 21.

Daniels, Timothy P. 2007. "Liberals, Moderates and Jihadists: Protesting Danish Cartoons in Indonesia." *Contemporary Islam* 1(3): 231 - 246.

Davidson, Jamie S. 2007. "Politics-as-Usual on Trial: Regional Anti-Corruption Campaigns in Indonesia." *The Pacific Review* 20(1): 75 - 99.

_____. 2018. *Indonesia: Twenty Years of Democrac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Toward Consolid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Effendy, Bahtiar. 2003. *Islam and the State in Indonesia*.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Esposito, John L, and John Obert Voll. 1996. *Islam and Democrac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Feener, R. Michael. 2007. *Muslim Legal Thought in Modern Indones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Fionna, Ulla, and Francis E. Hutchinson. 2019. "Indonesia's 2019 Elections: A Fractured Democracy?" *Asian Affairs* 50(4): 502 - 519.

- Fossati, Diego. 2019. "The Resurgence of Ideology in Indonesia: Political Islam, Aliran and Political Behaviour." *Journal of Current Southeast Asian Affairs* 38(2): 119 - 148.
- Hadiz, Vedi R., and Boo Teik Khoo. 2011. "Approaching Islam and Politics from Political Economy: A Comparative Study of Indonesia and Malaysia." *The Pacific Review* 24(4): 463 - 485.
- Hamayotsu, Kikue. 2002. "Islam and Nation Building in Southeast Asia: Malaysia and Indonesia in Comparative Perspective." *Pacific Affairs* 75(3): 353 - 375.
- Hasan, Noorhaidi. 2006. *Laskar Jihad: Islam, Militancy, and the Quest for Identity in Post-New Order Indonesia*. Ithaca, NY: Cornell Southeast Asia Program.
- Hefner, Robert W. 2000. *Civil Islam: Muslims and Democratization in Indonesia*.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Hicks, Jacqueline. 2012. "The Missing Link: Explaining the Political Mobilisation of Islam in Indone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2(1): 39 - 66.
- Hofmann, Steven Ryan. 2004. "Islam and Democracy: Micro-Level Indications of Compatibility."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7(6): 652 - 676.
- Huntington, Samuel P. 1991. "Democracy's Third Wave." *Journal of Democracy* 2(2): 12 - 34.
-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3. "Political Culture and Democracy: Analyzing Cross-Level Linkages." *Comparative Politics* 36(1): 61 - 79.
- Inglehart, Ronald. 2000. "Culture and Democracy." Lawrence E. Harrison and Samuel P. Huntington, eds. *Culture Matters: How Values Shape Human Progress*. New York: NY: Basic Books, 80 - 97.

- Kahin, Audrey R. 2012. *Islam, Nationalism and Democracy: A Political Biography of Mohammad Natsir*. Singapore: NUS Press.
- Kingsbury, Damien. 2005. *The Politics of Indonesia*. 3r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ddle, R. William, and Saiful Mujani. 2013. "Indonesian Democracy: From Transition to Consolidation." Mirjam Künkler and Alfred Stepan, eds. *Democracy & Islam in Indone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4 - 50.
- Magalhães, Pedro C. 2016. "Economic Evaluations, Procedural Fairness, and Satisfaction with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9(3): 522 - 534.
- McCarthy, Rory. 2018. "When Islamists Lose: The Politicization of Tunisia's Ennahda Movement." *Middle East Journal* 72(3): 365 - 384.
- Menchik, Jeremy. 2016. *Islam and Democracy in Indonesia: Tolerance without Liberalism*.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etzner, Marcus and Burhanuddin Muhtadi. 2018. "Explaining the 2016 Islamist Mobilisation in Indonesia: Religious Intolerance, Militant Groups and the Politics of Accommodation." *Asian Studies Review* 42(3): 1 - 19.
- Mietzner, Marcus. 2018. "Fighting Illiberalism with Illiberalism: Islamist Populism and Democratic Deconsolidation in Indonesia." *Pacific Affairs* 91(2): 261 - 282.
- _____. 2021. "Sources of Resistance to Democratic Decline: Indonesian Civil Society and Its Trials." *Democratization* 28(1): 161 - 178.
- Noer, Deliar. 1973. *The Modernist Muslim Movement in Indonesia, 1900 - 1942*.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 Park, Jung Hoon. forthcoming. “Stuck in Place? Normalization and the Changing Voter Profile of Indonesia’s Islamist Prosperous Justice Party.”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 Platzdasch, Bernhard. 2009. *Islamism in Indonesia: Politics in the Emerging Democracy*.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 Randall, Vicky, and Lars Svåsand. 2002. “Introduction: The Contribution of Parties to Democracy and Democratic Consolidation.” *Democratization* 9(3): 1 - 10.
- Rüland, Jürgen. 2021. “Democratic Backsliding, Regional Governance and Foreign Policymaking in Southeast Asia: ASEAN, Indonesia and the Philippines.” *Democratization* 28(1): 237 - 257.
- Setiawan, Ken M.P. 2020. “A State of Surveillance? Freedom of Expression under the Jokowi Presidency.” Thomas P. Power and Eve Warburton, eds. *Democracy in Indonesia: From Stagnation to Regression?* Singapore: ISEAS Publishing, 254 - 274.
- Sidel, John T. 2006. *Riots, Pogroms, Jihad: Religious Violence in Indonesia*.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Singh, Bilveer. 2007. *Talibanization of Southeast Asia: Losing the War on Terror to Islamist Extremists*. Westport, Connecticut: Praeger Security International.
- Slater, D., and E. Simmons. 2013. “Coping by Colluding: Political Uncertainty and Promiscuous Powersharing in Indonesia and Bolivia.”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46(11): 1366 - 1393.
- Stepan, Alfred. 2000. “Religion, Democracy, and the ‘Twin Tolerations.’” *Journal of Democracy* 11(4): 37 - 57.
- Stepan, Alfred. 2014. “Muslims and Toleration: Unexamined Contributions to the Multiple Secularisms of Modern Democracies.” Alfred

- Stepan and Charles Taylor, eds. *Boundaries of Tolera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67 - 296.
- Tanuwidjaja, Sunny. 2012. "PKS in Post-Reformasi Indonesia: Catching the Catch-All and Moderation Wave." *South East Asia Research* 20(4): 533 - 549.
- Tessler, Mark. 2002. "Islam and Democracy in the Middle East: The Impact of Religious Orientations on Attitudes toward Democracy in Four Arab Countries." *Comparative Politics* 34(3): 337 - 354.
- Tezcür, Günes Murat. 2010. "The Moderation Theory Revisited: The Case of Islamic Political Actors." *Party Politics* 16(1): 69 - 88.
- Tibi, Bassam. 2008. "Islamist Parties and Democracy: Why They Can't Be Democratic." *Journal of Democracy* 19(3): 43 - 48.
- Whitehead, Laurence. 1986. "International Aspects of Democratization." Guillermo O'Donnell, Philippe C. Schmitter, and Laurence Whitehead, eds. *Transitions from Authoritarian Rule: Comparative Perspectives*.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3 - 46.

Abstract

Testing Comparability of Islam with Democracy:
A Micro-level Analysis of Indonesian Muslims

Jung Hoon PARK
Institute for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Using data from surveys conducted in the past decade, this article examines how Indonesian democracy has been compatible with Islam since the country's political opening in 1998. Specifically, it carries out a micro-level analysis of how Indonesian Muslims have perceived democratic systems and norms. Findings indicate a growing tendency that Indonesians affected by an Islamist agenda are more likely to oppose democracy than others. In contrast, supporters of Islamist parties do not show such tendency. This article thus has an important implication that mobilization through political parties is expected to increase the compatibility of Islam with democracy.

Keywords: Islam, Democracy, Indonesia, Muslim, Micro-level Analysis

